

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 연구

(자체연구, 2015 ~ 2019)

최 충 호

요 약

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중부지역 육성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,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종자산지별 유묘의 생장에서 수원, 평택, 완도지역의 경우 노지묘가 온실묘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대체적으로 월동처리구가 더 우수하였다. 지역별 편백나무 잎의 전기전도도를 측정된 결과, 수원지역의 잎에서 가장 높은 전기전도도를 보여 가장 활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, 성남, 여주, 용인 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. 편백나무 잎의 엽록소 함량의 경우 성남지역의 총 엽록소 함량이 수치상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평택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 전과 차이는 없었다. 지역별로 식재된 입목들 중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기 위해 수고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입목의 수고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오산지역이며, 가장 낮은 지역은 부천지역이었다. 중부지역 편백나무의 적정 양묘조건을 구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멀칭처리를 실시한 결과 95% 차광망 처리구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.

I. 서 언

편백나무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일본 특산종이며, 우리나라 남부지역 주요 조림수종 중 하나이다. 목재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제거 효과, 소취력, 항균력, 항산화 활성, 미백효과, 진정효과 등의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최근 침대, 베개, 탈취제, 도마, 막걸리, 돛자리 등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등에서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.

편백나무는 경남, 전남이 대표적인 조림 등 식재 산지이나 최근 산업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지지역을 비롯한 중부지역의 조림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.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고(高)부가가치 수종 편백나무의 중부지역 생육목을 대상으로 내한성을 검정하고, 내한성 개체를 선발하여 중부지역 신소득원으로서 육성하고자 한다.